

광주시, 맥쿼리와 협상 이번엔 제대로 해야

광주순환도 3-1구간 협약 변경 등 놓고 18일 첫 만남 시 재정부담 큰 최소수입보장 수정 추진...1구간도 협의

광주시가 오는 18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와 만나 1구간과 3-1구간의 공익처분, 협약 변경 등을 놓고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맺은 1구간 변경협약이 맥쿼리 간부,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 시장 측근, 담당공무원 등의 비리 연루와 사전 교감 등으로 변질된 만큼 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1:2심에서 승소·일부승소하고도 합의금으로 369억원을 내놓고, (주)광주순환도로투자 법인세

345억원(추정치)을 내주기로 했으며, 자본금과 고리의 차입금을 포함한 2341억 5000만원에 대해 9.8%의 수익률을 맥쿼리에 보장해줬다. 오는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보장된 것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는 16일 "맥쿼리와 3-1구간의 협약 변경을 위해 18일 만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1구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볼 방침이다"고 밝혔다. 맥쿼리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참석할 것인지, 1구간 재협의를 받아들이는 미지수다. 시는 일단 1구간을 공익처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해놓은 만큼 완료 뒤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난 2016년 12월 맺은 1구간 변경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구간(효덕 나들목-풍암나들목, 3.5km)의 경우 맥쿼리가 75%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다. 실시협약 당시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장해줄기로 돼 있으며, 2034년까지 2323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추정이다. 시는 1구간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부담이 큰 최소수입보장(MRG)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 협약이 이미 체결돼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쉽게 재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공익처분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3-1구간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맥쿼리에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등 44건 처리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27건, 예산안 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광주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주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치행정국 선임 부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고 의결했다. 또 채용,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광주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행정 사무조사는 이번 달까지 진행되는 시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는 광주시, 시교육청, 사업소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해 시정 요구 496건, 제안사항 255건 등을 했다.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738억원 늘어난 5조877억원,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454억원 증액한 2조1479억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전남도선관위, 2760만원 지급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의 찬조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총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열린 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시장 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명·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의 여론조작 건을 신고하고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C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결성, SNS·명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 270만원을 받게 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상젤리제 거리 운집한 '노란 조끼' 시위대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경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5차 집회가 열린 15일(현지시간) 파리 최대 변화가 상젤리제 거리에 수많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모여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교부세 521억 확보...전년보다 21% 증가

광주시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31개 사업 1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총 52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시책수요 66억원, 현안수요 183억원, 재난안전수요 272억원 등 시 분청 223억원, 자치구 298억원에 배분된다. 이는 지난해 특별교부세 총 430억원에 대비 21%(91억원) 증가했고, 시 분청 기준 223억원으로 지난해 129억원 대비 73%(94억원) 대폭 증가했으며 규모상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요별 확보내역을 보면, 시책수요는 ▲광주수영대회 경기장 진입도로 정비(10억원) ▲광주수영대회 훈련시설 개보수(10억원) ▲광주수영대회 선수단 수송노선 교통시설 개선(20억원) 등 66억원, 현안수요는 ▲시립민속박물관 시설개선(17억원) ▲본촌산단 진출입로 확장(20억원) ▲광엑스포 주재관 리모델링(10억원) 등 183억원이다. 재난안전수요는 ▲동림육교 보수·보강(9억원) ▲천변구조물 18교 보수공사(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8억원) 등 272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40억원, 서구 52억원, 남구 67억원, 북구 55억원, 광산구 84억원 등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올 으뜸 시책 '국제수목비엔날레' 선정

'전남 빛낸 올 시책 톱 10' 발표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올해 전남도가 추진한 시책 가운데 으뜸으로 뽑혔다. 전남도는 2018년 도정 주요시책 34건에 대해 도정 직원들과 도민평가단 등이 심사해 '전남 올 으뜸 시책 톱 10'을 선정, 16일 발표했다. 창의성·도정발전 기여도·효과성·노력도·파급효과·도민수혜 등을 고려해 1·2차로 평가했다. 1차 평가는 도정 직원 48명이 주요 시책 34건 중 20건을 가렸다. 1차 통과 20건을 대상으로 도정평가위원회·도민평가단·도의원·시군 공무원 등 29명이 시책 담당자의 현장 발표를 듣고 2차 평가해 '톱 10'을 선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심사 결과, 최우수 시책으로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뽑혔다. 전통 회화를 테마로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수목비엔날레는 2개월 동안 관람객 29만 여명이 몰려 수목 행사로는 드물게 예술성과 대중성에서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시책으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 사업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 ▲전국 최초 노인 결핵 전수검진이 선정됐다. 장려시책으로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 구축 ▲관광 프로그램 '남도 한 바퀴' ▲항공사 (주)에어필립 노선 무안공항 유치 ▲낙지 자원량 증대를 위한 낙지목장 조성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뽑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의료원 의사 채용·연봉 책정 '맘대로'

전남도 감사서 무책임·방만운영 적발...무안군 부적정행위 26건 강진의료원의 무책임·방만 운영이 전남도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9일까지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직 채용시 절차 미준수, 임의 진료휴진, 제약회사 식사 접대 등 총 1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5명을 징계하고, 5억5000만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했다. 강진의료원장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인사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으며, 근거 없이 연봉 8800만~3억2300만원을 독단적으로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으면서, 결원이 발생한 사무직 4급은 1년5개월, 보건직 4급은 2년10개월간 승진 또는 총원하지 않았다. 수당·성과급·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도 '깜깜이' 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추석 명절때 의사에게만 명절 당직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연봉계약직인 원장이 초과

행정행위 26건을 적발, 11건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대상인 1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추징·감액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무안군은 체험관 건립 건축 설계·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성격과 참가자격이 다른 2개 사업을 하나로 발주해 건축설계를 끝냈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난 5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다. 또 2014년 경관 조성사업 임찰을 하면서 과도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4개 업체만 경쟁에 참여하게 됐고, 이 때문에 낙찰률이 올라 80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하규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코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